

T V

TV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EBS. Rows 6-12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V 17일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EBS. Rows 6-12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V 18일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EBS. Rows 6-12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시크하고 도도한 척 하지만 한없는 바보랍니다”

SBS 새 주말극 '바보엄마'서 주인공 영주 역 김현주



“시크하고 도도한 척을 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현주 (35)가 17일 첫선을 보이는 SBS 새 주말극 '바보엄마'를 통해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그런데 영주는 집에서는 한 아이의 바보 같은 엄마고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다. 그런 일상적인 면이 나와야 해서 의상이나 캐릭터 잡기가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나 “를 모델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며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 낸 캐릭터다. 전작(‘반짝반짝 빛나는’)에서 출판사 사장 역할을 해서 책이 출판되는 과정은 익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바보엄마”는 삼대에 걸친 세 여자의 용서, 화해, 사랑을 그린 휴먼 드라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영주, 시골서 올라온 바보 언니 선영, 영주의 딸 닷발 세 사람이 서로를 향한 끈끈한 사랑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는다.

김현주는 영주에 대해 “시골에서 자라다 상경해 과거를 지우고 마치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온 아이처럼 행동한다”며 “어찌 보면 남을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캐릭터인 것 같다.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늘 남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대본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적장애를 가진 언니 선영은 영주에게 언제나 걸림돌이다. 열 살 때부터 언니를 피했지만 선영은 급기야 영주를 찾으려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다. 호적에는 언니로 돼 있지만 사실 선영은 영주의 어머니였던 것. “영주는 처음에는 언니 선영이 인생의 걸림돌이라 생각하지만 극 후반에 가서는 자신이 언니의 걸림돌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된 선배 하희라와 신현준은 든든한 버팀목이다. “제 성격이 힘들고 화가 나면 짜증내는데 언니 오빠들은 묵묵히 너무 잘해요. 정말 ‘아 이래서 선배님구나. 이래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는 극중 최연소 잡지 편집장 영주 역을 맡았다. 일적으로는 완벽한 프로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달바보’인 데다 남편의 외도를 견뎌내야 하는 인물이다.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바보엄마” 제작발표회에서 김현주는 “간간하고 날카로운 면은 표현하기 쉽다”면서

“시골에서 자라다 상경해 과거를 지우고 마치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온 아이처럼 행동한다”며 “어찌 보면

“시골에서 자라다 상경해 과거를 지우고 마치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온 아이처럼 행동한다”며 “어찌 보면

“시골에서 자라다 상경해 과거를 지우고 마치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온 아이처럼 행동한다”며 “어찌 보면

“시골에서 자라다 상경해 과거를 지우고 마치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온 아이처럼 행동한다”며 “어찌 보면

“시골에서 자라다 상경해 과거를 지우고 마치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온 아이처럼 행동한다”며 “어찌 보면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6일(음 2월 24일 丙子)



36년생 왕년의 가래에 집착하지 마라. 48년생 공동 상생의 길을 모색. 60년생 힘이 되어주는 이를 만나게 되니 인연을 소중히 하라.

42년생 관점을 달리하고 시야를 멀리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54년생 무례하면 싸움이 될 수도 있다. 66년생 힘들었을 때 진정한 운운 효과가 있다. 78년생 먼저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오해가 없다.



37년생 겉모습에 쉽게 속을 수도 있다. 49년생 풍요 속의 빈곤감이 들게 된다. 61년생 유명무실한 것부터 개운하게 정리하라. 73년생 경제적인 면이 제일 우선. 85년생 돈이 전부냐 아님을 알자.

43년생 다수에게 크게 각광받으면서 참된 보람을 느낄 수 있다. 55년생 말을수록 좋으리라. 67년생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구조적 모순부터 해결해야 한다. 79년생 초심을 잃지 말고 애정을 가져라.



38년생 가란의 조짐이 보이니 수습할 준비를 하라. 50년생 지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결산이 나빠진다. 62년생 상대와의 사이를 원만 한 관계로 이끌어야 한다. 74년생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대하라.

44년생 화소성의 가치가 있는 것을 획득할 수 있다. 56년생 상황에 변수가 보이지 않으니 일시적이다. 68년생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80년생 방치하면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39년생 세인의 주목을 받게 된다. 51년생 밖으로 알리지 말고 조용히 추진하라. 63년생 건전한 사고와 착실한 행동의 실천이 바람직한 진로를 열게 된다. 75년생 피할 것은 철저히 배제해야 함.

45년생 공상을 떨쳐 버리고 현실성의 차원에서 다투어 하라. 57년생 해결책을 마련하는 중에 많은 경험을 쌓게 된다. 69년생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면 성사된다. 81년생 기미가 보일 때 손을 써라.



40년생 세속적인 위력 앞에서 굴복할 필요가 없다. 52년생 수요에 관한 단말 문제가 아니다. 64년생 원근의 관점이 아니라 정감의 유무니라. 76년생 반발할 수도 있으나 모든 상황에 대하여 확실하게 대비하라.

46년생 순서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라. 58년생 어떠한 형태로든지 명확한 의사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70년생 책무를 다한 후에 처벌을 기다리는 것이 도리. 82년생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41년생 감정을 절제해서 거친 말은 되도록 삼가게 것이 좋다. 53년생 종합적으로 연계해야 효과가 크다. 65년생 외관과 규모도 중요한 시기다. 77년생 사소한 것은 가볍게 넘겨 버려야 하느니라.

47년생 원인은 가장 근본적인 것에 있느니라. 59년생 새로운 일에 가담해도 좋다. 71년생 자주 접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이다. 83년생 소신을 가지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40년생 지속적인 위력 앞에서 굴복할 필요가 없다. 52년생 수요에 관한 단말 문제가 아니다. 64년생 원근의 관점이 아니라 정감의 유무니라. 76년생 반발할 수도 있으나 모든 상황에 대하여 확실하게 대비하라.

46년생 순서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라. 58년생 어떠한 형태로든지 명확한 의사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70년생 책무를 다한 후에 처벌을 기다리는 것이 도리. 82년생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41년생 감정을 절제해서 거친 말은 되도록 삼가게 것이 좋다. 53년생 종합적으로 연계해야 효과가 크다. 65년생 외관과 규모도 중요한 시기다. 77년생 사소한 것은 가볍게 넘겨 버려야 하느니라.

47년생 원인은 가장 근본적인 것에 있느니라. 59년생 새로운 일에 가담해도 좋다. 71년생 자주 접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이다. 83년생 소신을 가지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41년생 감정을 절제해서 거친 말은 되도록 삼가게 것이 좋다. 53년생 종합적으로 연계해야 효과가 크다. 65년생 외관과 규모도 중요한 시기다. 77년생 사소한 것은 가볍게 넘겨 버려야 하느니라.

46년생 순서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라. 58년생 어떠한 형태로든지 명확한 의사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70년생 책무를 다한 후에 처벌을 기다리는 것이 도리. 82년생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41년생 감정을 절제해서 거친 말은 되도록 삼가게 것이 좋다. 53년생 종합적으로 연계해야 효과가 크다. 65년생 외관과 규모도 중요한 시기다. 77년생 사소한 것은 가볍게 넘겨 버려야 하느니라.

47년생 원인은 가장 근본적인 것에 있느니라. 59년생 새로운 일에 가담해도 좋다. 71년생 자주 접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이다. 83년생 소신을 가지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